

식중독 없는 안전한 유치원 급식환경 조성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2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장, 영양교사, 영양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전달 내용으로는 △유치원 급식 운영의 내실화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 및 식생활 관리 강화 △식중독 관리 등이다.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유치원장은 연간 급식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유아에게 제공하는 식단표, 영양양,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실제 급식사진을 유치원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급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학교급식에 근거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잔류농약,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 오염 식재료, GMO, 항생제, 합성첨가물)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보고·대응 체계 등을 안내하고,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으로 유병초 유수진 영양교사가 '안전한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운영인 교육국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및 균형 잡힌 급식 제공으로 유치원 급식의 품질 향상과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 지역 교육협력 사업 본격 추진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 워크숍

사례 발표 통한 모델 구체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7~28일 교직원수련원에서 '2025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 모델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오명연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의 '부안 지역 교육협력 모델' 사례발표 △구준희, 허대중 위원의 지역 포럼 및 정담회 추진을 위한 순창·전주 지역 사례 발표 △2025년 특별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및 방향 논의의 △포럼 및 정담회 운영 계획 토론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 △부안 지역 교육·문화 탐방 등으로



지난달 27~28일 교직원수련원에서 열린 '2025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 워크숍' 진행했다. 이명영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25년 지역과 함께특별자문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협력하는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지역교육 교재 개발... '학교에서 활용 가능'

중학생용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고교생용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발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전북 지역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교재는 중학생용 워크북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와, 고등학생용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2종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는 전북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도를 쉽게 이해하고,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오랫동안 지역과 지역교육 연구에 힘써온 지역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이 집필진과 자문위원,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수차례 토론과 검토를 거쳐 보다 내실있고 현장성 있게 개발됐다.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자율과제로 선정, 전북도 교육협력추진단-전북대 사범대학-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선택과목 개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책 표지

가운데 단위 학교가 개발 부담없이 지역 과목을 개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3월 말 중학교 교과지출시간 연수를 통해 과목 개발 및 지역교육 교재 활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중·고등학생용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책 표지

지역교육 교재가 개발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이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자긍심을 키워가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지역교육 교재를 활용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2024 AIDT 초등 적용교원 연수 사업 성과공유회

'2024 AIDT(AI Digital Textbook) 초등 적용교원 연수 사업 성과공유회'가 지난달 28일 전주시 데미호텔에서 개최됐다.

3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선도교사 감사단과 일반 초등학교원 등 사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해

에 적용한 우수사례 발표 및 소감을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AIDT 기반 교육 연수의 성과와 공유했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주교육대학교 정영식 산학협력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2024 AIDT 초등 적용교원 연수 사업의 정량적 성과 발표와 함께 참여 교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 수업

에 적용한 우수사례 발표 및 소감을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AIDT 기반 교육 연수의 성과와 공유했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주교육대학교 정영식 산학협력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2024 AIDT 초등 적용교원 연수 사업의 정량적 성과 발표와 함께 참여 교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 수업

AI 기반 신소재 개발 가속화

전북대 이태훈 교수팀, 'BIVO4' 구조 규명



이태훈 교수



이용혁 박사

계에 꼭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화학 분야 권위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Impact Factor 14.5)에 게재됐다.

이태훈 교수는 "단백질 구조 예측처럼, 복잡한 전자 재료 표면 역시 AI를 이용하면 단시간에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 기술이 향후 미래 소재 발굴과 성능 평가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소재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이태훈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와 UCLA의 이용혁 박사가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고성능 광전기화학 소재인 'BIVO4'의 복잡한 표면 구조를 빠르고 정밀하게 규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AI 기반 구조 예측 샘플링 기법을 이용해 기존 대비 수천에서 수만 배 빠른 속도로 BIVO4 표면 구조를 검증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관측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복잡한 구조를 규명, 이를 토대로 미래 촉매·광전기화학 시스템 설

양오봉 전북대 총장 대교협회장 임기 시작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3월 1일자로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임기는 1년이며, 공식 취임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부회장은 이기정 한양대 총장과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이 양 총장과 함께 대교협을 이끈다.

양오봉 총장은 "하렘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위기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대교협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97개 회원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또 대학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운영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21일까지... 상시 신청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21일 초·중·고교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7,000원부터 76만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

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dclick.n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5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기관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2025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3일 전주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로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예비창업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주대는 로컬콘텐츠와 관련한 8개 학과(학부)가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전공(로컬콘텐츠 경영, 로컬창업기획)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현장 분야에 종사하는 로컬콘텐츠 창업자(경영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전북 지역의 지속 가능한 로컬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이끌기 위해 하반기에는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로컬벤처창업전공의 석·박사 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규과정 외에도 로컬콘텐츠 창업으로 만들어진 여러 기업(사업체)들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컬콘텐츠 아이디어 거대 및 평가, 로컬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기업과의 공동 팝업스토어 등을 통한 로컬콘텐츠 유통 경험의 축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대학교는 2년간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로컬창업 전문 멘토단 구성, 창업 실습 공간 조성, 창업캠프, 셀러마켓,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 정주형 산업 인재 양성

전주기전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달 27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형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천 총장과 김대식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외국인 유학생 생활 밀착형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내 외국인 화합 문화 축제 진행 △지자체-산업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새만금 한글학당 등의 운영에 대한 적극 협력 등에 건립해 협력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조희천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이고 목표 의식을 가진 건강한 학업 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장은 "지·산·학의 연계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인한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내 구성원의 노력과 연계해 글로벌 전북으로 발돋움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아동에 간식 나눔 실천

전주 완산구 위치 35곳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치킨 지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지난 2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니셔티브사업인 전북 68호 회원인 '이희상' 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올해로 5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한 아동은 "치킨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현영 전북지원단장은 "이번 간식 지원이 단순한 간식 제공을 넘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부설초 교원 총장포상 수여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달 27일 대학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총장포상(근속상)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총장포상(근속상)은 부설초등학교에서 5년 이상 근속하며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날 수여식에서는 전주부설초등학교 송성근·심지현·신치호 교사, 군산부설초등학교 오건·전은경·황은경 교사 등 총 6명의 교원이 표창을 받았다.

박병춘 총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